

제목: 죄에 대하여

설교: 덕정사랑교회 김양환 목사님

Title: Concerning Sin

Sermon by Pastor Kim Yang-hwan, Deokjeong Love Church

본문: 요한복음 16장 7-8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Scripture: John 16:7-8

Jesus said that it was for the disciples' good that He would go away, for the Advocate would come and convict the world concerning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와 인간 교리에 붙잡히면, 회개를 말하면서도 방향을 잃는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 convicts concerning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But when people are bound by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human doctrines, they may speak of repentance while losing the right direction.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경멸했다.

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

Jesus came as the light, but the Jews despised Him.

They confessed Jehovah as God, yet they could not believe that Jesus, who came in flesh, was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뜻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 죽이려 했다.

To the Jews, the title “Son of God” pointed to God Himself.

Therefore they accused Jesus of blasphemy and sought to kill Him.

죄는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Sin began in the Garden of Eden.

God allowed man to eat from every tree, but He commanded him not to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같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사탄에게 미혹된다.

The forbidden fruit is like the temptation placed before us today.

When we follow what looks desirable, pleasing, and attractive, we are deceived by Satan.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죄의 삯은 모든 인류에게 흘러왔다.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After Adam sinned, the wages of sin flowed to all humanity.

Because people are conceived in sin, no one can escape sin by his own power.

어린아이라도 죄의 흐름 아래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회개가 필요하다.

Even children are born under the flow of sin.

Therefore every person needs the blood of Jesus and repentance.

니콜라당의 교훈처럼, 당을 짓고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이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부활의 표를 보여준다.

Like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forming factions and opposing God's Word is hateful to God.

Aaron's staff that budded shows God's appointed order and the sign of resurrection.

죄를 모른 채 신학과 직분만 붙잡으면 허울 좋은 종교인이 된다. 헤롯처럼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If a person holds only theology and office without knowing sin, he becomes merely a religious shell.

Like Herod, the proud can collapse in a moment.

선악과를 육체적 사건으로 왜곡하는 이단의 해석을 따르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다.

Do not follow heretical interpretations that distort the forbidden fruit into a fleshly event.

When Adam ate it, the sin of disobedience to God entered humanity.

첫 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셨다.

“아담은 산 영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다.”

The first man Adam brought death, but Jesus, the last Adam, brought life.

Adam became a living being, but the last Adam became the life-giving Spirit.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게 된다.

When we receive Jesus, life comes into us.

Like the apostle Paul, we confess that it is no longer we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us.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되었다.

할례, 음식,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처럼 붙잡으면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The Galatian church began by the Spirit but was deceived by legalists.

If circumcision, food laws, and the Sabbath are held as conditions for salvation, one ends in the flesh.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분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지도자도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함을 보여준다.

Moses was meek, yet when he became angry and obscured God's glory, he could not enter Canaan.

This shows that even a leader must fear before the Word of God.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뒤 인간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려 했다.

Sin is disobedience to God's Word and failure to do good.

After eating the forbidden fruit, man tried to become a judge instead of a servant who obeys.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죄의 뿌리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다.

The desire to become like God is the root of sin.

That is why people easily judge, condemn others, and try to sit in God's place.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한다.

천국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언, 은사, 표적만 붙잡으면 결국 길을 잃는다.

If the tree is good, its fruit must also be good.

If one clings not to faith that aims for heaven but only to prophecy, gifts, and signs, he eventually loses the way.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뿐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사람이나 목사에게 붙어 있으면 소용이 없다.

What we need is Jesus, the Lord of heaven.

It is useless to cling to a person or pastor instead of clinging to Jesus.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며 칼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안에서는 칼과 불처럼 사탄의 역사를 끝낸다.

The Word of God is fire and a sword.

When the Word is proclaimed in the Spirit, it cuts off Satan's work like a sword and fire.

그러나 교리가 설교의 중심이 되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짓 확신에 빠진다.

그때 회개와 순종은 사라지고, 천국 길도 희미해진다.

But when doctrine becomes the center of preaching, people fall into the false assurance that they are already saved.

Then repentance and obedience disappear, and the way to heaven becomes dim.

성경에는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사탄은 그런 말들을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고, 한 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The Bible does not use the terms Modalism or Trinity.

Satan uses such terms to make people fight and to keep them from seeing the one God.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refore, to be freed from sin, we must return to Jesus, who is God.

요한복음 16장의 ‘그’는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한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실 수 있었다.

The “He” in John 16 refers to the Spirit of Jesus, the Holy Spirit. Jesus had to go so that the Holy Spirit could come into all believers and teach them directly.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찢리고 책망이 온다.

Before receiving the Spirit, a person recognizes sin through the law.

But after receiving the Spirit, when he sins, conviction and rebuke come into his heart.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는다.

그 후에 짓는 죄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When we believe, the Holy Spirit comes, and when we repent, the blood of Jesus cleanses us.

The sins we commit afterward must also be confessed and repented of.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If we confess our sins, God is faithful and righteous; He forgives our sins and cleanses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과거·현재·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사함받았다는 말은 회개를 무너뜨린다.

그런 교리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끈다.

The claim that all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are already forgiven destroys repentance.

Such doctrine does not give life to believers; it leads them toward death.

지식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으면 믿음 약한 자도 따라간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지식보다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When a knowledgeable person sits in an idol's temple, the weak in faith may follow him.

Therefore leaders must live by the Word and obedience, not by knowledge alone.

제사 음식,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관찮다고 가르치면 성도는 우상숭배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If people are taught that ritual food, memorial worship, and funeral worship are acceptable, believers enter idolatry.

God commanded,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죄와 의와 심판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상 임금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신다.

The Holy Spirit convicts the world concerning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He rebukes wrong faith in Jesus and ignorance of the judgment of the ruler of this world.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라.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Remember the transfiguration, where Moses and Elijah disappeared and only Jesus remained.

The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beloved Son; listen to Him.”

성령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The Holy Spirit is not a separate being detached from Jesus; He is the Spirit of Jesus.

The Father is in Jesus, and the Father’s Spirit comes into us as the Holy Spirit.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e power of death was broken.

Whoever enters Jesus moves from death to life.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책망과 회개를 통해 생명 안에 머문다.

The sin that leads to death is not believing in Jesus.

Those in Jesus may still sin, but through rebuke and repentance they remain in life.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를 분명히 밝힌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John 16:9 clearly defines sin: concerning sin, because people do not believe in Jesus.

죄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Sin is not believing in Jesus, who is God.

Only by believing in Jesus can we receive forgiveness and call God our Father.

구약에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구원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께서 아들의 이름, 예수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In the Old Testament, salvation was in the name of Jehovah; in the New Testament, Jehovah came in the Son's name, Jesus.

Therefore we must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to become God's children.

언약은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

사랑 없이 법만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

The covenant must be kept with love.

The Jews who tried to keep law without love eventually rejected Jesus.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도박, 술, 음란, 탐심은 미루지 말고 지금 끊어야 한다.

When fighting sin, we must resist to the point of shedding blood.
Gambling, drunkenness, lust, and greed must be cut off now, not delayed.

은사, 율법, 표적, 베리칩 논쟁에 빠지면 예수님을 놓친다.

마지막 때 주님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If we fall into gifts, law, signs, or Verichip arguments, we lose sight of Jesus.

In the last days the Lord asked whether He would find faith.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성령을 받고 회개했다.

그 후 그는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The apostle Paul opposed the Lord and persecuted believers, but after receiving the Spirit he repented.

Afterward he confessed that he would boast in nothing except the cross and Jesus.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

나를 죽이는 자까지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Even if we die, we must go with Jesus.

We must forgive even those who kill us and proclaim the gospel.

우리가 용서해야 그들도 복음을 들을 길이 열린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영혼을 묶는다.

When we forgive, a way opens for others to hear the gospel.

A heart that refuses to forgive eventually binds its own soul.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끊고, 음란한 자는 음란을 끊고, 술 취하는 자는 술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The thief must stop stealing, the immoral must stop immorality, and the drunkard must stop drunkenness.

Yet the root is to believe in Jesus and repent.

창세기 4장 7절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한다.

죄가 마음 문 앞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회개해야 한다.

Genesis 4:7 says that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When sin comes to the door of the heart, we must rule over it and repent.

죄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열매 맺는다.

행동으로 옮긴 죄는 사망을 향해 사람을 끌고 간다.

If sin enters the heart and is not dealt with quickly, it bears fruit in action.

Sin carried out in action drags a person toward death.

예수 믿을 때 원죄와 과거의 자범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나 살아가며 짓는 죄는 계속 자백하고 돌이켜야 한다.

When we believe in Jesus, original sin and past personal sins are forgiven.

But the sins we commit while living must continually be confessed and turned from.

눈으로 범죄하면 눈으로 본 것을 끊어야 한다.

계속 보면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돌이킴이 아니다.

If we sin with our eyes, we must cut off what we look at.

Continuing to watch it while saying we repent is not true turning.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듣지 않으면 선하게 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Wisdom is also needed when preaching the gospel.

As Scripture says not to give what is holy to dogs or pearls to pigs, if they refuse to hear, we should treat them kindly and wait.

믿을 때 예수님이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오신다.

믿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When we believe, Jesus enters through the door of the heart.

Without faith, one cannot open the door or receive Him.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사명을 밝힌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Matthew 1:21 reveals Jesus' mission: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예수님은 먼저 길 잃은 이스라엘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나 넓게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므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Jesus first came to seek the lost sheep of Israel.

Yet in the broader sense all humanity belongs to God as His creation, so the gospel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요단강에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 없이 의식만 붙잡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받았다.

At the Jordan River, people confessed their sins and were baptized.

But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lung to ritual without repentance, so they were rebuked as a brood of vipers.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는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What matters is not circumcision of the flesh but circumcision of the heart.

Circumcision of the heart means confessing sin and repenting.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역이 드러났다.

구약의 제사장이 안수하여 죄를 넘기듯,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When Jesus was baptized, His work of bearing humanity's sin was revealed.

As the Old Testament priest laid hands to transfer sin, God's righteousness was fulfilled through John the Baptist.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다.
그 피만이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Jesus had to bear all sin and shed His blood on the cross.

Only that blood forgives sin and cleanses us.

교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 교리,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를 붙잡는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나와야 한다.

Doctrine does not save.

Instead of clinging to Catholic doctrine, Calvinist doctrine, or Wesleyan doctrine, we must come before the name of Jesus.

순교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The faith of martyrdom arises when we hear the Word.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comes through the word of Christ.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용서의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Matthew 6:12 teaches the law of forgiveness: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미움 속에 머물 수 없고, 결국 용서의 자리로 가야 한다.

If we cannot forgive others, our own sins cannot be forgiven.

A person in whom the Spirit dwells cannot remain in hatred; he must come to the place of forgiveness.

중풍 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The paralytic came before Jesus by faith.

Jesus said to him, “Take heart, your sins are forgiven.”

병의 뿌리에 죄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병 고침만 구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Sometimes sin lies at the root of sickness.

Therefore we must not seek only healing, but first receive forgiveness before the Lord.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Jesus said He desires mercy, not sacrifice.

He did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다.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ighteous do not come to Jesus.

Those who cling to works of the law reject the gospel because of their own righteousness.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

Paul once considered himself blameless according to the law, but after meeting Jesus he counted it as refuse.

He confessed that he would boast in nothing except the cross.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 자가 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산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생명이 열린다.

As those who looked at the serpent lifted in the wilderness lived, those who believe in Jesus on the cross live.

When we confess that Jesus died because of our sin, life is opened.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불린 것은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가난한 자, 세리,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Jesus was called a friend of sinners because He loved sinners and came to save them.

We must learn His heart, which went near to the poor, tax collectors, and the sick.

교회는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 즐기는 곳이 아니다.

있는 자가 낮아지고, 없는 자를 돕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The church is not a place where the powerful gather to enjoy themselves.

It must be a community where those who have much humble themselves, help those who lack, and save souls.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Everything we have has been received from God.

If we despise others because of what little we possess, we lose the Lord's heart.

목사와 성도도 주 안에서는 형제다.

직분 때문에 높아지려 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Pastor and believers are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We must not exalt ourselves because of office, but love and serve with purity.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주님께 하는 일이다.

Serving the poor is serving the Lord.

Visiting the imprisoned, comforting them, and praying for them is also service to the Lord.

믿음은 영혼 구원을 목적 삼는다.

걸을 꾸미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Faith aims at the salvation of souls.

Saving one soul is more important than decorating the outward appearance.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들릴 때 화내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징계가 오기 때문이다.

When the Word points out sin, do not become angry; repent.

For if we defile God's temple, discipline will come.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할 수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며,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 버리신다.

The life of faith cannot be lukewarm.

We must be cold or hot; if we are lukewarm, the Lord will spit us out.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의 참뜻을 보여준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었던 것은,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Matthew 12 shows the true meaning of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could break Sabbath regulations without guilt because Jesus, greater than the temple, had come.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다시 안식일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Jesus is Lord of the Sabbath.

If the Lord of the Sabbath has come and we return to Sabbath legalism, we fail to see Jesus.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유대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The statement that One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reveals that Jesus is God.

The Jews condemned the innocent One and crucified Him.

예수님을 욕할 때는 가만히 있고, 칼빈이나 인간 교리를 건드릴 때 분노한다면, 이미 우상이 마음에 있는 것이다.

If a person is silent when Jesus is dishonored but becomes angry when Calvin or human doctrine is challenged, an idol already sits in his heart.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국 문 앞에 선 것이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이시며, 우리 아버지 자리에 계신 분이다.

To know the one God is to stand before the gate of heaven.

That Jesus is Jehovah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One seated as our Father.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길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

Those in Jesus have a way to repent even when they sin.

But the sin of not believing in Jesus is the sin that leads to death.

인간 교리와 우상숭배를 붙잡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일이다.

If one clings to human doctrine and idolatry, he walks the road of destruction.

Offering flowers to the dead and eating ritual food is going outside the Word.

천국은 실제로 있고 지옥도 실제로 있다.

축복이나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Heaven is real, and hell is real.

More important than blessing or healing is believing in Jesus in order to enter heaven.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이루어 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Salvation is not completed on this earth; it is worked out as we keep the faith.

The outcome of faith is the salvation of the soul.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

가족에게도 사랑으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며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전해야 한다.

We must preach the gospel whether people listen or refuse.

Even to family, we must speak in love that Jesus is the one God and that repentance brings forgiveness.

한두 번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다투지 말고 맡겨야 한다.

복음은 억지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If someone refuses after one or two admonitions, do not keep arguing; entrust them to God.

The gospel is not won by forced quarrels but by witnessing to the truth.

예수님의 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자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Those born by the blood of Jesus become God's true children.

Therefore we must believe in Jesus' name, confess our sins, and be born again by the Spirit.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

원수를 품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We must not keep enemies in our hearts.

One who holds an enemy may go to hell because of that sin, so forgiveness is necessary.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다.

죄란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다른 죄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The core of today's message is clear.

Sin is not believing in Jesus, who is God, and other sins can be forgiven when repented of in Jesus.

여호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Jehovah came in the Son's name and completed the work of salvation on the cross.

Now we must believe in the Lord Jesus, repent, and keep the faith to the end.

주 예수는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생명의 부활을 입는다.

The Lord Jesus means my Master and my God.

Whoever believes in Him receives forgiveness, lives as the Lord's child, and receives the resurrection of life.

죄는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책망과 회개를 통해 생명 안에 머물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

Sin is not believing in Jesus, who is God.

Those in Jesus remain in life through rebuke and repentance,
but those outside Jesus remain in death.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교리,
은사, 율법을 만들어 붙잡게 한다.

우리는 정직하고 착한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Satan makes people cling to doctrine, gifts, and law so that they
cannot believe in Jesus.

We must become honest and good witnesses who preach the
gospel.

죽을 자는 주 안에서 죽고,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자연히 죽을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다.

Let those who must die die in the Lord, those called to
martyrdom be faithful, and those who die naturally keep faith to
the end.

Meeting again in heaven is the hope of the saints.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Thank You, God.

All glory belongs to Jesus Christ, the one God.